

第49回
(定期會)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8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12月21日(木) 午後2時

議事日程

1. 1994會計年度城北區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
2. 1996年度城北區歲入·歲出修正豫算(案)

附議된案件

1. 1994會計年度城北區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城北區廳長 提出) 2面
2. 1996年度城北區歲入·歲出修正豫算(案)(城北區廳長 提出) 3面

(14時00分 開議)

○議長 柳成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25일 정기회가 시작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심의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장석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事務局長 姜丙燮 사무국장姜丙燮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13일 '96년도 예산안 제출후, 추가소요예산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등 8건의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방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 이동도시관 위탁운영

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96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방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은 시민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성북구청 및 보건소와 8개 동사무소,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12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5일간은 '9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文京周議員과 간사에 尹晚九議員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12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 세차례의 회의를 개의하여,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9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571만2,000원을 증한다는 제3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4會計年度城北區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城北區廳長 提出)

(14時03分)

○議長 柳成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文京周委員長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文京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文京周議員입니다.

1994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예비심사를 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시 한 번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율이 90.9%로서 전년도 대비 7.2% 하락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성북구로서는 각종 세원에 대한 징수율을 100%이상 달성하여야 하나, 징수율이 저조하였으며, 또한 세외수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체수입중 지방세 수입보다 더 크고, 신장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세외수입관리에 특단의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집행비율이 87.8%로서, 전년도 대비 3.8%정도 증가하였으나, 예산편성시 예측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책정한 결과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의 발생에 대비한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예비비의 81%에 달하는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부족분 예산을 충당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예측가능한 부분에 지출로서,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예비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집약하여 집행부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와같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본 문제점을 '96년도 예산안 심사시 반영하도록 하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柳成烈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文京周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성

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年度城北區歳入・歳出修正豫算(案)(城北區廳長 提出)

(10時08分)

○議長 柳成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文京周委員長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文京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文京周議員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지난 12월13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예산제출후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하며, 일부과목을 경정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2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15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빈약한 우리구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집행기관의 정책과 사업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또한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과소비적이고, 전시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총예산액 규모는 수정없이, 1,040억7,500만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중 일반행정비 523억873만9,000원중 1억8,788만7,000원을 삭감하여, 521억2,085만2,

000원으로, 사회개발비 329억2,224만6,000원중 7,970만5,000원을 증액하여 330억195만1,000원으로, 경제개발비 118억6,976만2,000원중 3억2,869만5,000원을 증액하여 121억9,836만7,000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12억5,343만3,000원중 2억2,051만3,000원을 삭감하여 10억3,253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중 관리비 33억8,831만4,000원중 4억원을 삭감하여 29억8,831만4,000원으로 조정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4,462만9,000원을 4억원을 증액하여 4억4,462만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새마을 소득 지원 특별회계의 회계명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로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조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柳成烈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文京周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權赫驥議員 의석에서-자료를 오늘 주고, 토론하고 질의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보지도 못하겠네.)

安敦洙議員님.

○安敦洙議員 존경하는 柳成烈議長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들 연말을 맞아 막바지 업무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정릉2동 安敦洙議員입니다.

목소리가 평소 목소리 같아도 듣기 싫은 부분이 있을텐데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북구의 행정면에 있어서 예산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만큼 예산의 적절한 사용과 절약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

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는 이번 행정감사과정을 통해서 또는 구정질문시 수반되는 자료나 예산심의를 통해서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큰 문제점 중의 한가지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 세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들 잘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사정책의 문제 즉, 인사행정에 있어서 빈번한 인사이동과 전문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나타나는 예산의 낭비 문제입니다. 다시말해서 뚜렷한 전문지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예산을 더욱더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노인정 신축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설계는 용역을 주어서 이미 끝이났는데 정작 시공을 하려고 하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 결국 시공을 못하게 되고 결국은 아까운 설계비만 낭비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2층까지 짓는 건물을 창문 설치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설계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어 버리는 바람에 결국 다시 공사를 해야하고 또 그동안은 시설물을 구민들이 제대로 이용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어떻게 또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하자보수하러 어쩔라 하는 동안 들어가는 예산상의 낭비, 그 피해는 결국 구민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니 이렇고도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복지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잘해보려다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실수와, 무사안일의 태도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정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은 물론 노력하려는 마음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일부 담당자들이 현장파악과 업무협조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탁상행정만으로 무사안일하게 일을 처리했다가 결국 수천만원 대에 달하는 예산상의 낭비는 물론 구민들에게 불편

과 금전적인 피해까지 끼치게 되었다면 이것은 분명 실수가 아니라 업무 태만이자 책임 회피의 범죄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한 두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책임져야 할 모든 지휘 계통의 공동책임이라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누구누구처럼 수천억대의 돈을 횡령해야만 큰 죄인은 아닐 것입니다. 구민이 피땀어린 세금을 낭비한 그 잘못 역시 그에 못지않다고 본의원은 또한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부디 관계되는 모든 분들은 깊이 가슴에 새겨 앞으로 정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선정, 그리고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의뢰 및 자문 요청등을 위해 정말 지방자치 시대의 복지행정 구현이라는 취지에 부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그대로 우리의 살림을 우리가 직접 가꾸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우리 성북구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건설사업이나 시설의 관리 운영권 등이 거의 다 타지역 업체나 사람들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째서 우리 지역의 살림을 타지역에 맡겨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 지역내에선 그런 사업들을 행할 만한 건설업체나 그만한 영향을 갖춘 운영권자들이 없기 때문일까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왕이면 애향심과 지역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겸비한 우리지역의 이웃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사료되는 바, 이 자리를 빌어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본의원을 포함한 우리 의원진 모두의 지적이나 건책이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성북구의 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다 합당하고 도움이 되는 말들이 될 수는 없으리라는 점, 저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충언이라고 생각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 역시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닌, 발전을 위한 지적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柳成烈 네, 安敦洙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네, 丘在永議員님.

○丘在永議員 존경하는 柳成烈議長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성북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일부터 각 상임위원 활동 예산안 결산 및 예비심사와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제8차 본회의 승인(안)의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본의원이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성북구는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도시이기에 집행부인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시점에 민원발생요인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뛰며 관찰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구민의 애로사항을 미리 청취하여 살기좋은 성북 환경과 또한 쾌적하고 인정이 오가는 성북, 문화인의 성북을 이룩하는데 전력의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성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약 50%도 안되는데, 없는 살림에 공무원들께서는 나의 가정살림이라 생각하고 근검, 절약하여 실제 뛰면서 실천하는 참된 일꾼이 되어 주시길 건의하는 바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우리 구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구청장이 출범하는데 성북을 갈사는 구, 쾌적한 환경의 구, 교통중심의 구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의 모범지역, 또한 문화와 교육의 구로서 인정과 풍유의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 집행부의 행정이 혼연일치되어 친절 봉사 발휘의 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의원은 토론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柳成烈 丘在永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의원님, 尹弘老議員님.

○尹弘老議員 尹弘老議員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6회계년도 예산안 중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관하여는 지난 12월14일 행정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에서 예산안 2억5,000만원의 30%인 7,500만원을 감액하여 반영할 것을 심도있게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산안을 보니까 지난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에 2,000만원만을 감액하여 2억3,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보고가 예산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면 구민의 여망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는 괴로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 통반장 신문구독을 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왔으며, 금번 예산 심의에서도 구독료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니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원안대로 7천5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동의 제의합니다.

그 첫째 이유로는 구정에 협조하고 있는 통반장에게 신문구독 하도록 배려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인색해야 할 까닭이 뭐 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도 신문이나 공짜로 구독하고자 희망하는 차원의 시대는 이미 흘러서 지나갔다 이 말씀입니다.

둘째, 구독자의 의지에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신문을 구독토록 한다면 현재 예산으로서 전체 통반장 7,128명에게 구독배려할 수 없음으로서 공정성에도 결여되었다 할 것입니다.

셋째, 본래 본 사업이 구독자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는 신문이란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배달원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 관리하여 신문대 지급하는 행정청의 절차상의 문제로 업무가 증폭되고 시민으로부터 행정불신초래 등 예산 투자에 대한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우리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방금 예산특위 위원장님께서도 열악한 사황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9.3%로서 상대적으로 빈곤세대가 많고 복지행정이 요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 편의시설은 형편없이 낙후되어 교통의 혼잡, 주차의 관리등 우리 주변 생활환경은 갈수록 황폐화되고 한계점에 이르고 있음으로 시민생활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특별배려로 도로의 건설 주차장 확충 사업에 투자확대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의원여러분!

신문구독료가 구청당국에서 우리 구의회에 굴러들어온 황폐한 재원이 아니고 대다수 시민이 고생스럽게 모아서 만든 돈, 사업은 망했어도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눈물겨운 바로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이란 점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우리가 과거의 의식과 관행을 깨끗이 청산하고 행정혁명을 통해서 행정기관을 위한 행정적인 경비, 전 시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심상한 자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이웃의 고통소리를 알고 시민위주의 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 서울시의 총 부채가 4조 4,010억이라는데 기업체 위탁 시정 운영한다면 행정이 시민을 위한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시민의 주장은 우리 공직사회의 자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성북구의 중기재정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로개설공사가 50건을 비롯하여 길음역 환승 주차장 건립, 학교운동장 시설내의 지하주차장 건설등 고뇌의 행정대책이 역연하나 이 모두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현재로서 적극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현상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슴을 쫓다가 산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발전 행정을 위해서는 관례적인 인건비 과다한 행정비, 형식위주의 예산을 절감하여 선심성 행정은 새로운 역사 앞에 청산 시정하여야 합니다.

그렇게하여 행정불신의 돌아선 민심을 되찾고 참다운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서 두번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신문구독료와 관련하여 최동환간사 의원께서 인근 구청에서는 신문구독 제도를 이미 폐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도 늦은감이 있으나 연차적으로나마 전면폐지하고 그 예산을 구민을 위한 사업비로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충정에서 당초 행정위원회 예산예비심의시에 의결된 사항대로 오늘 결의가 되도록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냉철하신 판단으로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柳成烈 네, 尹弘老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이 있음)

네, 金順權議員님.

○金順權議員 지역개발위원회 소속 金順權議員입니다. '94년도의 세입예산액이 855억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000억이었습니다. 수납액은 924억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북구청에서 세입예상을 일부러 가장 최저금액에서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입예상액을 적절한 가격에서 책정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96년도 성북구 예산을 보면 인건비 플러스 경상비가 73.3%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21.7%입니다. 인건비 플러스 경상비가 과다하게 많은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에 와서 우리도 행정적으로 한번쯤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이 동사무소 철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성북구도 내부적 준비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 차원에서 차체적으로 동사무소 폐지를 위한 내부적인 준비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번째는, 의원 활동비 현실화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급경비가 지급되어야 됩니다. 원래 내무부 방침이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 한 195만원 정도 의정활동비가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대통령께서 지난번 지방선거에 대패해서 대통령령으로 35만원으로 활동비를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의 일관성도 상실되었고 두번째,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반자치적인 행위입니다. 이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뿐아니라 구청 공무원께서도 사회적 문제를 열악시켜서 의원들 활동비는 분명히 현실화 되어야 됩니다.

네번째, '70년대, '80년대 경제개발5개년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관변조직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영향은 컸습니다.

일종의 개발독재에 있어서 총대를 메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문민시대에 돌아왔습니다. 문민시대라는 것은 시민자체 조직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업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청과 구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공동으로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이번에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포괄예산 부분들 특히 공무원분들의 활동비들을 많이 포괄적으로 주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이라든지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를 14억 정도를 우리가 예산심의 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공무원들 자체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될 경우에는 남들은 남용된다든지 또는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시 철두철미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구청 공무원들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십시오. 앞으로 감사시에는 지출계획서를 일일이 확인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통반장 제도가 우리 의회에서 개편되어야 한다고 선배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 '96년도에 통반장 구독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정책의 일관성 상실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통반장제도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자체는 통반장제도를 활성화

화 한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尹弘老議員님이 제기했던 것처럼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柳成烈 金順權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금 安敦洙議員님하고 丘在永議員님이 토론하신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安敦洙議員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모든 일, 즉 매사에 계획적으로 일을 하시라는 체적질로 알아 주시고 보다 나은 우리 성북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도 곁들여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주의 촉구를 보고 구청측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丘在永議員님하고 安敦洙議員님의 말씀은 그렇게 대변을 해서 또한 세번째로 尹弘老議員님이 토론하신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尹弘老議員의 예산안 수정 동의는 성북구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을 살펴보면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서면으로 발의를 하여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면동의가 없었으므로 구청측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尹弘老議員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의원님들이 잘 인지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우리 규칙상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 尹議員님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부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청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장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장의 위임여부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沈長錫 '96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성북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를 합니다.

○議長 柳成烈 沈長錫 副區廳長님께서 구청장님의 명에 의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의원님! 그리고 沈長錫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45分 散會)

○出席議員 41人

崔哲模	吳榮作	徐化錫
尹弘老	洪性濤	尹晚丸
金甲濟	李龍變	朴景錫
權赫騏	俞鎮武	金珉爽
任泰根	金光植	金鈴基
安傑瑑	申宗鉉	安敦洙
金振權	金壽榮	文京周
金榮植	李鍊垌	崔桂洛
金東殷	辛在福	李承魯
許東翼	朴時俊	柳成烈
鄭昌萬	金順權	李大一
羅光洙	金南孝	宋夏星
高允根	趙基燦	柳興先
徐榮振	丘在永	

○缺席議員 1人

崔東煥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專 門 委 員

宋 鍊
崔 石 根

○參席公務員

副 區 廳 長
總 務 局 長
財 務 局 長
市 民 局 長
都 市 整 備 局 長
建 設 局 長
保 健 所 長
文 化 公 報 室 長
監 查 室 長
民 願 擔 當 官 室 長
總 務 課 長
企 劃 豫 算 課 長
社 會 進 興 課 長
民 防 衛 課 長
財 務 課 長
稅 務 管 理 課 長
賦 課 課 長
地 籍 課 長
社 會 福 祉 課 長
衛 生 課 長
產 業 課 長
清 掃 課 長
住 宅 課 長
再 開 發 課 長
都 市 整 備 課 長
公 園 綠 地 課 長
建 設 管 理 課 長
交 通 行 政 課 長
下 水 課 長
保 健 行 政 課 長
保 健 指 導 課 長

沈 長 錫
李 均 佑
蔡 昇 基
張 壽 吉
朴 石 安
李 東 湜
曹 宗 希
姜 錫 泰
姜 錫 泰
李 鍾 淳
田 喜 久
金 敏 九
金 永 洙
白 石 彬
李 海 雄
金 淳 哲
金 慶 烈
文 連 松
元 在 雄
高 鎔 銀
趙 漢 石
安 明 佑
李 哲 雄
朴 昌 植
金 成 道
金 圭 泰
丁 奎 允
宋 政 宰
金 容 後
朴 聖 百
黃 寅 攝